

## 예비유아교사가 경험한 자기 주도적 봉사의 의미 탐색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교실 봉사를 중심으로-

황지애  
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 Exploring the Meaning of Self-directed Service experienced by Preservice Teachers -Focused on the Service of Daycare Programs for Lower Grades of Elementary-

Ji-Ae Hwang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은 예체능 및 놀이문화 형성 프로그램 중심의 '2016 여름방학 대학생 돌봄교실 봉사'에 참여한 예비유아교사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이들이 봉사과정을 통해 겪은 경험의 의미를 질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예비유아교사 6명으로 이들은 봉사프로그램의 계획, 예산편성, 재료구입, 실천, 평가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자기 주도적 봉사의 취지를 수용하고 참의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방학 중 40시간 이상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돌봄교실을 방문하여 봉사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료로는 연구참여자치널, 개인면담 및 단체면담 전사본, 전화통화 전사본, 메일, 차수별 자체평가 기록지 등을 활용하였으며,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삼각측정, 구성원검토작업, 전문가의 조언과 검토 등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자기 주도적 봉사에 참여한 예비유아교사들의 봉사경험관련 의미는 '생각하는 힘이 자라요',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아가요', '함께 하는 자체가 중요해요', '자원·정보 활용능력이 필요해요' 등으로 이루어진 '역량을 갖춘 전문적인 교사 되어가기'와 '유초연계교육의 필요성을 알아가요', '유초연계교육에 대해 배우고 싶어요' 등으로 세분화된 '유초연계교육에 대한 안목 키워가기'로 크게 범주화되었다.

**Abstract** Six preservice teachers who participated in the "2016 service of summer vacation daycare programs by university and college students" focused on the programs for the formation of 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and recreation culture were selected as research participants. The meaning of the experience they had through the service process was qualitatively analyzed. The subjects accepted the purpose of the self-directed service in which they should themselves solve a series of the entire process, from planning a volunteer program through drawing up the budget and purchasing materials to practice, evaluation and expressed the intention of participation. A volunteer program was conducted including visiting a daycare program for lower graders of elementary school (1st and 2nd grades) with more than 40 class hours during vacation. As research materials, research participants' journals, transcripts of individual interviews and group interviews, transcripts of phone calls, e-mail messages, and self-evaluation records of each class hour were collected. To increas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study, triangulation, member check, advice and review of the experts were conducted. In the study results, the volunteering experience-related significance for the preservice teachers who participated in the self-directed service were broadly categorized into 'Becoming a capable professional teacher', that consists of 'Increasing the power of thinking', 'Realizing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Doing together itself is important' and 'Ability to apply information and resources is needed'. 'Increase the continuity between preschool and elementary education' was subdivided into 'Get to know the necessity of the continuity between preschool and elementary education' and 'Want to learn the continuity between preschool and elementary education.'

**Keywords** : self-directed service, preservice teacher, daycare programs, lower grades of elementary

본 논문은 2016학년도 원광보건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Corresponding Author : Ji-Ae Hwang(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Tel: +82-10-5098-5770 email: jii007@wu.ac.kr

Received October 20, 2016

Revised (1st November 4, 2016, 2nd November 9, 2016)

Accepted November 10, 2016

Published November 30, 2016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가 국가발전전략으로 ‘창의·인성 교육’을 정책적으로 제시한 이후, 한국 교육의 핵심 개념은 창의성 및 인성교육이 되었다[1]. 이에 따라 전인적 인간성장 발달의 최적으로 고려되는 유아기의 교육목표 또한, 3-5세 누리과정을 통해 창의·인성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2].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신고로 접수된 사례를 보면 총 17,791건 중, 보육교직원인 2.9%인 295건, 유치원교직원이 0.9%인 99건으로 보고되고 있어[3], 유아교사들의 아동학대 관련 사건이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살피 수 있다. 즉 바른 인성을 지닌 미래의 인재를 길러낼 책임이 있는 유아교사들의 인성이 오히려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명제가 대변하듯, 유아 인성교육은 이를 행하는 교사의 자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유아교사의 인성관련 자질을 함양시킬 수 있는 실천적 노력이 뒤따라야함을 시사하는 바라 하겠다. 그렇다면, 이를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4]는 현직 교사 이전의 예비교사 시기의 교육경험이 향후 어떤 교사가 되는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피력한다. 즉 직전 교사 시기에 경험한 것이 어떤 현직교사가 되는지 주요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현직 유아교사들의 인성 또한, 유아교사 양성기관으로부터의 경험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예비유아교사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양한 방법이 모색될 수 있으나, 봉사활동이 예비유아교사들의 인성 도야를 위한 효율적인 기제로 활용되고 있다[5,6]. 봉사활동은 개인의 선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웃을 돕는 인간에 대한 작은 관심에서 출발하여 나와 내 가족의 행복과 이웃사람을 실천하며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나누는 방법으로[7], 2009년부터는 교육부에서 모든 교육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교육봉사 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며, 봉사활동은 지역사회와 연합된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을 향상시키는 교육적 활동, 교과과정이란 의미로 인식되면서[8], 봉사활동이란 개념이 봉사학습(service learning)으로 그 의미가 확장된다[9].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는 봉사활동을 통해 예비유아교사들은 타인을 위한 나눔과 헌신을 경험하며 이타적인 인간이 되어감을 밝힌

다[10]. 또한 봉사활동은 교사로서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확립시켜준 계기가 되었음을 피력한다[11]. 즉 예비유아교사들에게 봉사활동은 배려와 나눔이라는 인성 덕목함양과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예비유아교사들에게 있어 봉사의 긍정적 측면이 부각되면서, 관련 연구들이 전개되고 있다.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의 의미를 살핀 관련 선행연구들을 보면, 대부분 연구자가 계획한 프로그램에 따라 예비유아교사들이 봉사현장에 참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비유아교사의 전공 관련 봉사학습의 의미를 탐색한 [10]의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유아들의 언어인지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WE START 유아교육 중재프로그램 활동집을 주요 활동으로 선정하고 예비유아교사들에게 지도하여 전공관련 봉사학습을 실시한 결과, 예비유아교사들은 봉사를 통해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피력한다. 예비유아교사들의 단기해외봉사 교육봉사의 의미를 살핀 [11]의 연구에서는 해외봉사라는 특성상 참여국별로 수행할 교육활동 및 계획안에 대해 연구자의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결과 예비유아교사들은 해외봉사를 통해 유아교사로서의 소명감을 확신하게 되었음을 기술한다. 이 외 [12]와 [13]의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들이 보육 및 교육현장에서 봉사활동에 대한 계획 없이 현장 유아교사들의 지도를 받으며, 상황에 따라 청소, 책읽어주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으며, 그 결과 예비유아교사들은 교육 및 보육관련 직업적 적성을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예비유아교사들의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이들이 겪은 봉사경험의 의미를 질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대부분 연구들이 연구자들이 미리 구상한 봉사활동 계획 하에 예비유아교사들은 ‘짜여진’ 틀 안에서 봉사경험을 갖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이러한 봉사경험으로 인해 예비유아교사들은 봉사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갈등상황 및 문제 상황과의 만남, 그리고 이에 따른 문제해결능력을 신장시키지 못하고, ‘교사로서의 정체성 경험, 직업적 특성 파악’ 등 봉사를 통해 얻게 된 결과론적인 측면에 생각이 집중되어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즉 예비유아교사들은 봉사프로그램의 계획, 실행, 평가까지 스스로의 생각에 따라 모든 과정을 실행하지 못하고 구성된 프로그램 안에서 봉사가 시작됨으로써 자기계발을 이루어낼 수 있

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봉사프로그램의 계획에서부터 자료수집, 활동, 평가까지 예비유아교사들 스스로의 판단과 생각으로 모든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봉사를 구성하여 이들이 겪는 경험의 의미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이는 예비유아교사들이 기존의 ‘짜여진 틀’ 안에서 봉사를 하며 인식하게 된 생각과는 또 다른, 의미 있는 경험을 할 것으로 예견되며, 이러한 결과는 자기 주도적 봉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된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하겠다.

자기 주도적 행위에 대한 교육적 효과는 이미 선행연구들을 통해 검증되고 있다. 교사가 자기 주도적 학습과정을 통해 자신감, 책임감이 향상되었다는 연구[14], 예비유아교사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교사 역량과 전문성 인식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검증한 [15]의 연구가 그 사례이다.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하며 자료를 수집하고 실제 학습을 진행한 후, 스스로 학습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으로[16] 개념화됨을 고려할 때, 자기 주도적 봉사 또한 봉사에 참여하는 예비유아교사들이 스스로 봉사프로그램의 목적을 설정하고, 프로그램관련 세부내용을 계획하며,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봉사실시 후, 그 결과 또한 자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총체적인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지식기반 사회에서 전문적인 인재들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생애핵심능력이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라는 점을 간주할 때[17], 자기 주도적 봉사 역시 봉사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의미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들이 자기 주도적 봉사를 실천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겪는 경험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최한 ‘2016학년도 여름방학 대학생 돌봄교실 봉사’에 참여의사를 자발적으로 밝힌 6명의 예비유아교사들이 연구 참여자로 선정되었다. 대학생 돌봄교실은 방학 중, 집안 형편으로 인해 학교에 등원하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대학생들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다. 돌봄이라고는 하지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상 실시해야하는 교육적 행위가 요구되는 봉사이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대상의 예체능 프로그램과 놀이문화 형성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교육 봉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이 단순히 스펙을 쌓는다는 경력관리 차원을 넘어 지역 아동들에게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실시하는 경험을 통해 유아교사로서의 전문성과 인성함양을 위한 봉사학습으로 그 개념이 확장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또한 유초연계 차원에서 예비유아교사에게 부족한 현장 경험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유아교사 양성 과정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예비유아교사가 경험한 자기 주도적 봉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전남 S시에 소재한 S전문대학 유아교육과에 다니는 예비유아교사들로, 3학년 3명, 1학년 3명 총 6명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보조연구자가 교육 기부포털 사이트에서 ‘2016학년도 여름방학 대학생 돌봄교실 봉사단’ 모집이라는 알림을 보고, 예체능 중심의 교육활동 및 또래문화 게임 활동을 학생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해야 하고, 방학 2달여 동안 40시간 이상(2016.7.18.~8.31)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활동을 실시해야 함을 총 학생 278명에게 전체공지를 하였고, 이후 자발적인 의사를 밝힌 학생들로부터 돌봄교실 봉사단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Table 1. Research Participants

Student's Name	Year	Details related to the preceding service
1 Gaha	Junior	Did volunteer work as an assistant at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Exhibited volunteer work like cleaning at local child welfare facilities and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Don't have any volunteering experience with elementary lower grades.
2 Naha	Junior	Same as above
3 Daha	Junior	Did volunteer work as an assistant at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Did volunteer work as an assistant at child welfare facilities once a month for 1 year, Did active short-term service activities (Child safety experience events and Cleaning Village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Don't have any volunteering experience with elementary lower grades.

4	Raha	Fresh man	Did volunteer work as an assistant in various events of local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Don't have any volunteering experience with elementary lower grades.
5	Maha	Fresh man	Same as above
6	Baha	Fresh man	Participated in volunteer work as an assistant at local welfare facilities. Don't have any volunteering experience with elementary lower grades.

## 2.2 연구의 진행과정

### 2.2.1 예비유아교사 교육

연구에 참여한 예비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돌봄교실 봉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7월 1일 1시간 30분 정도 실시하였다. 대학생 돌봄교실 봉사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하였고, 예체능 및 놀이문화 형성 프로그램을 주차별로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며 자체 평가까지 실시해야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1차 협의회 전까지 대략적인 주차별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함을 알려주었다.

### 2.2.2 돌봄교실 활동 수행을 위한 협의회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주차별 프로그램 및 예산 편성에 대해 협의회를 7월 11일과, 18일, 두 차례 실시하였다. 소요시간은 약 90분~120분 정도였다. 예비유아교사들이 초등학교 현장에 가서 수행할 주차별 예체능 및 놀이문화 형성 프로그램 교육활동 및 계획안을 작성하여 갖고 온 것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와 유아교육과 교수 1인이 예비유아교사들과 함께 협의하였고 이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거쳤다. 수정보완시 예비유아교사들의 뜻을 충분히 수용하며 가급적 예비유아교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자와 교수 1인은 초등학교 대상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기 힘들 것 같은 프로그램에 관해서 조언을 하거나 예비유아교사들이 구성한 활동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 활동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보다 흥미로울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다음의 표 2는 완성된 돌봄교실 봉사활동에 대한 개괄이며, 표 3은 활동계획안의 예시이다.

## 2.3 자료수집 및 분석

예비유아교사들의 자기 주도적 봉사활동의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돌봄교실에 참여하기 전인 7월 20일부터 종료한 8월 31일까지 54개의 연구참여자저널(A4용지

Table 2. Educational Activity Contents

Class No.	Time	Area of Activity	Title of Activity
1	13:00-16:00	Formation of recreation culture/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 Greetings and introduction of service members
			- Manito Game
2	10:00-12:00	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 Gymnastics in groups of two
			- Treasure Hunt
3	13:00-16:00	Formation of recreation culture	- Decorating leaves with frottage
			- Making a raincoat with leaves
4	10:00-12:00	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 Making a raincoat with leaves
			- Doing a fashion show in the raincoat
5	13:00-16:00	Formation of recreation culture	- With-one-voice Game
			- Gesture Quiz Game
6	10:00-12:00	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 Expressing animals together with friends
			- Presenting the expression of animals in front of peers
7	13:00-16:00	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 Making a plaster air fresher
			- Decorating a fan
8	10:00-12:00	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 Changing lyrics and making and presenting a dance routine
			- Making sandwich
9	13:00-16:00	Formation of recreation culture	- Feeding peers with each other
			- Watching the five-minute film <i>You Are Umasou</i>
10	10:00-12:00	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 Coming up with the end scene of the story by the team
			- Making a movie hero mask
11	13:00-16:00	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 Juvenile drama choosing the movie cast
			- Decorating friends with foil
12	10:00-12:00	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 Foil fashion show
			- Making a pinwheel
13	13:00-16:00	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 Flying the pinwheel
			- New sports flying disk activity
14	10:00-12:00	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 New sports handler activity
			- Squirrel and Hunter Game
15	13:00-16:00	Formation of recreation culture/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 Treasure Hunt
			- Decorating my own umbrella
16	10:00-12:00	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 Balloon Moving Game
			- Rhythm Bar Dance

65쪽), 12회의 개인면담 전사본(A4용지 115쪽), 2회의 단체면담 전사본(A4용지 15쪽), 전화통화 전사본(A4용지 3쪽), 메일(A4용지 6쪽), 차수별 활동계획안에 기술

Table 3. Activity Plan Sample

Week (Date)	Week 7 (August 11)	Time of 10:00-12:00 Activity	Place of Activity	Daycare Classroom
Area of Activity	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Title of Activity	Foil Fashion Show	
Purpose of Activity	1. Children can creatively dress up friends by decorating them with foil. 2. They can confidently participate in the fashion show. 3. They can cooperate with each other and participate in the activity.			
Activity Materials	Foil & exciting music			
Introduction (10 min.)	* Greetings * Finger play for attention (“I like you”) * Presenting the plan for decorating friends with foil and holding a fashion show			
Development (50 min.)	* Choosing a friend as one’s model * Dressing up friends by decorating them with foil			
15 min.	Break Time			
Development (25 min.)	* Holding a foil fashion show by the team			
Wrapping up (20 min.)	* Select a team that most creatively decorated a friend. * Talking about the today’s activity * Cleaning up			
Matters that require attention	1. Do not choose a child who feels shy against his or her will as a model in the fashion show. 2. Encourage the friends who became models when the fashion show is held.			
Self Evaluation	1. Was the activity appropriate for the development of children?			
	1)Strongly disagree	2)Disagree	3)Neutral	4)Agree
	5)Strongly agree			
	2. Could the activity attract the children’s interest?			
	1)Strongly disagree	2)Disagree	3)Neutral	4)Agree
5)Strongly agree				
3. As the teacher who gave the class, are you satisfied with the instruction of the activity?				
1)Strongly disagree	2)Disagree	3)Neutral	4)Agree	
5)Strongly agree				
4. What turned out well in the today’s activity?				
5. What should be improved in the today’s activity?				

된 자체평가 내용 등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료들은 [18]의 내용분석 방식에 따라 기본단위인 유니트로 정하고 분석하였다. 이렇게 유니트로 나누어 예비범주를 만들고, 이것에 따라 전체 내용을 다시 읽으면서 모든 유니트가 범주화될 때까지 범주를

제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다시 물어보고 범주 조정에 반영하는 구성원 검토작업 (member check)을 하였다. 또한 질적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삼각측정, 구성원 검토작업, 전문가의 조언과 검토 등 [19]의 질적연구 타당도 준거 방법을 사용하여 질적 연구가 추구하는 신뢰성인 진실성 (trustworthiness)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역량을 갖춘 전문적인 교사 되어가기

저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예체능활동과 놀이문화형성 프로그램을 실시한 예비유아교사들은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봉사학습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며, 보다 전문적인 교사가 되기 위한 역량을 갖추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 3.1.1 생각하는 힘이 자라요

예비유아교사들은 돌봄교실 봉사를 통해 교사의 핵심 역량으로 고려되는 반성적 사고 활동을 봉사과정에서 줄곧 보여주고 있었다.

아이들이 즐겁게 따라해 주어 기뻐했으나, 활동을 하기 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발문을 더 생각해 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음(나하, 8월 2일, 활동계획안 자체평가).

가면을 만들어 표현도 하려 했는데, 일찍 가는 아이들이 있어 동극은 하지 못했다. 미처 생각지 못한 변수에 대처하지 못한 것에 반성이 필요한 것 같다(바하, 8월 10일, 저널).

위 사례에서 보듯이, 예비유아교사들은 아동들에게 적합한 발문은 어떻게 시작할지, 그리고 수업 외 상황마다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등 봉사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 상황을 반추하며 보다 전문적인 교사가 되기 위한 경험을 쌓아가고 있었다. 또한 예비유아교사들은 봉사 후, 활동계획안에 내포된 자체평가를 작성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봉사 행위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특정 활동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면 다른 대안도 찾아보는 등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고 있었다.

샌드위치 만들기 요리활동을 하였다. 아이들이 자기

가 만든 샌드위치를 먹지 않았다. 점심밥 먹어 배가 부르다고. 다음에 하면, 오후 늦게 해야겠다(마하, 8월 5일, 활동계획안 자체평가).

한 마리의 동물을 협력해 표현해보는 신체표현활동을 하였다. 협동심도 길러주고. 그러나 아이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다. 각자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동물을 표현해보는 것으로 바꾸었다. 잘 움직이는 아이들을 보고 바꾸길 잘했다고 생각했다(가하, 8월 2일, 활동계획안 자체평가).

예비유아교사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식사전후를 살펴 요리활동을 계획함을 뒤늦게 깨닫거나, 단체신체표현활동을 진행하며 아이들의 반응을 살펴, 개별신체표현활동으로 변경하는 등 활동과정을 통해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학교현장의 상황을 파악하며, 활동을 수정 변경하는 판단능력을 키워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 3.1.2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아가요

예비유아교사들은 봉사를 준비하며, 활동의 계획, 실천, 평가까지 함께 협의하고, 소통하며 일련의 과정을 소화해나가야 하는 자기 주도적 봉사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서인지 예비유아교사들은 팀원끼리 혹은 초등학교 측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해가고 있었다.

짜케조 할 때, 시범도 보여야하고, 누가 메인이 되고, 동작은 어떻게 진행하고, 팀원들끼리 얘기가 필요했어요. 제 맘을 아는지 가하가 봉사가기 전날, 모이자해서 누가 시범보일지도 얘기하고,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았어요. 자주 얘기 해야겠다 싶어서요(나하, 8월 31일, 단체면담).

강당에서 다람쥐와 사냥꾼게임을 하게 되어있는데, 가나, 다른 활동을 강당에서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미리 얘기해주셨을 좋았을텐데, 소통의 중요성을 느꼈어요(가하, 8월 30일, 개인면담).

예비유아교사들은 자기 주도적 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팀원들간의 대화가 필요함도 깨닫기 시작하였고, 초등학교 선생님과과의 소통도 이루어져야 당초 계획했던 활동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음을 인식해가며, 팀원과 초등학교측과의 소통이 중요함을 인식해가고 있었다.

영화 보여주고 이야기 꾸며보자고 했는데 누구는 봉사자서 영화 틀면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며 안 된다고. 근데 또 누구는 아이들 연령대에 맞지 않고 힘들거 다하고, 결국 영화 잠깐 보여주고 끝 장면에서 멈추고 아

이들에게 어떻게 될지 이야기 만들어 보게 하는 걸로 됐어요(다하, 8월 31일 개인면담).

예비유아교사들은 위 사례처럼, 자기 주도적 봉사와 관련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갈등상황도 겪지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다른 예비유아교사의 의견도 수용하는 등의 토론과 조정과정을 거치며 전문적인 교사로 나아가기 위한 여정을 밟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 3.1.3 함께 하는 자체가 중요해요

예비유아교사들은 자기 주도적 봉사라는 근본적인 봉사 성격으로 인해 같이 모여 함께 논의하고 준비하는 등 함께할 기회가 많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비유아교사들은 협력해 준비하는 것이 일의 능률을 높임을 체득해가고 있었다.

봉사준비하며 같이 뭘 할까 고민하고, 좋은 활동 정해지면 서로 기뻐하고, 활동계획안 하나 짜고 나면 박수도 치고, 준비물도 같이 사러다니니깐 덜 심심하고(마하, 8월 12일, 저널).

예비유아교사들은 봉사활동에 필요한 활동계획안을 구성하거나 준비물을 구입하러가는 과정 등을 겪으며, 혼자가 아닌 팀원들이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인식해가고 있었다.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같이 준비하다보니깐, 친구가 어떤 성격인줄도 알겠고 제가 모르는 부분을 알려주기도 하고, 함께 하면서 그 친구한테 많이 배워요(다하, 8월 31일, 개인면담).

예비유아교사들은 봉사활동을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서 팀원들의 활동모습을 지켜보며, 배움의 기회를 갖기도 하였다. 이처럼 자기 주도적 봉사는 예비유아교사들에게 ‘함께 함’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었다. 또한 서로의 활동모습을 비춰보며 자기 성장을 위한 배움의 장이 되기도 하였다.

### 3.1.4 자원·정보 활용능력이 필요해요

예비유아교사들은 자기 주도적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팀원들과의 회의 후, 스스로 예체능 프로그램을 운영할 다양한 활동들을 책이나 관련 사이트를 보고 찾거나, 필요한 재료들을 계획하고, 구입하며 실제 교실 현장에서 활용해 보는 과정을 경험하며, 자원·정보 활용능력이 세삼 필요함을 인식해가고 있었다.

색다른 걸 하고 싶었는데, 유아미술책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뒤져보고, 은박지로 하는 꾸미기활동을 찾았죠. 정보나 자료 잘 찾는 것도 필요해요(마하, 8월 31일, 단체면담).

같은 맥락에서 가하(8월 31일, 단체면담)의 경우에도, ‘일상적인 학과 수업상황에서는 교수님이 보라고 하는 책만 보았고, 만들기 재료도 교수님이 가르쳐주는 데로 자료실에 가, 가져오는 것’이 대부분이었음을 밝히며, ‘돌봄교실 봉사의 경우에는 직접 활동도 짜야하고, 재료도 스스로 구해야하는 어려움’을 토로하며, ‘자료 잘 찾는 것도 교사의 능력’임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보건데, 예비유아교사들은 자기 주도적 봉사를 진행해가는 가운데, 자원·정보 활용능력의 중요성을 깨달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3.2 유초연계교육에 대한 안목 키워가기

### 3.2.1 유초연계교육의 필요성을 알아가오

연구 참여자들이 수학하는 본 유아교육과정에서는 유초연계관련 교과목이 편성되어 있지 않으며, 특강이나 워크숍 등에서도 한 번도 유초연계관련 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예비유아교사들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봉사를 나간다고 했을 때, 초등학교 졸업 후 처음 가보는 초등학교 교실에 설레임과 막연한 두려움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봉사가 진행됨에 따라 교실상황에 적응해가며 유초연계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유치원과 학교는 교육방식부터 생활패턴까지 다르다는 걸 느꼈다. 유아가 초등학교 가면 혼란스러울 것 같다. 만5세반에서 몇 달 전부터 초등학교 환경을 경험해보는 시간을 제공해주으로써 아이의 혼란을 줄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유초연계교육이 필요하고, 그걸 지도할 우리도 좀 배워야할 것 같다(가하, 8월 10, 저널).

유아는 오감을 이용해 놀이를 하는데, 이런 것을 계속해서 발달과정에 맞춰 초등학교에서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들과 아직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 보였다. 우리도 유초연계 배우면 이렇게 봉사를 하거나 나중에 가르칠 때 분명 도움이 될 것 같다. (마하, 8월 13일, 저널).

선생님이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를 보여주셨다. 음울에 따라 신체표현도 하고, 용어도 비슷해 보이고, 만5세반 교사가 되면 1학년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보

고, 유아들에게 많이 알려주고 싶다. 적응 잘 하게(나하, 8월 13일, 저널).

즉 예비유아교사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은 유아들의 발달수준과 비슷해 보였으나, 교실에서의 환경과 학교 생활패턴이 유치원과 달라보였으며, 본인이 만5세 유치원교사가 되면 미리 1학년 교과서를 보고 초등학교에 적응할 수 있게 도움도 줄 것임을 말하고 있었다.

### 3.2.2 유초연계교육에 대해 배우고 싶어오

예비유아교사들은 초등학교 교실현장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유초연계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예비유아교사 양성과정에서부터 관련 내용이 학습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유초연계교육이 실시된다면, 초등학교 1학년이 배우는 교과목들, 학교 생활패턴 같은 거 배우고 싶어요(나하, 8월 31일, 단체면담).

유치원을 떠나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가는데, 심리적인 안정성이나 발달적인 부분을 좀 더 배우면 좋겠어요(다하, 8월 31일, 단체면담).

이 외에도, 라하, 바하(8월 31일, 단체면담) 등도 ‘유초연계교육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아이들간의 수준차이와 수업의 방식차이, 1,2학년 아이들의 심리와 특징, 초등학생을 대하는 방법’ 등에 관해서도 배움이 있기를 피력하였다. 이처럼 예비유아교사들은 초등학교 교실에서 실시된 봉사를 통해 유초연계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배움에 대한 생각도 갖게 되었음을 엿볼 수 있었다.

##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예비유아교사들의 예체능 활동 중심의 자기 주도적 봉사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이 경험한 바의 의미를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체능 중심의 교육활동을 실시한 ‘2016 여름 방학 대학생 돌봄교실 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예비유아교사들은 프로그램의 계획에서부터 재료구입, 실행, 그리고 자체평가까지 실시된 일련의 과정을 경험하며 ‘생각하는 힘이 자라고’,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아가며’,

‘함께 하는 자체의 중요성’, 및 ‘자원·정보 활용능력의 필요성’도 인식하게 되면서 역량을 갖춘 전문적인 교사로 거듭나고 있었다. 이는 예비유아교사들이 전공관련 봉사활동을 통해 오히려 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봉사로 인해 학습을 하는 봉사학습의 기회가 되었음을 밝힌 [10]의 연구, 예비보육교사가 보육현장 봉사활동을 통해 미래 보육교사로서 자질을 함양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음을 논한 [13]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예비유아교사들은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띤 교실현장 속에서, 봉사를 실천하는 가운데 ‘생각하는 힘’과 관련해 자기 반성적 사고능력을 키워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수업현장을 되돌아보며 아동을 대하는 방법에 관해, 혹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수업상황의 여러 변수들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짚어보며 다음의 활동을 다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20]의 연구에 의하면, 반성적 사고는 교사들에게 중요하게 요구되는 덕목이며 교사교육 과정에서 길러주어야 할 역량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자기 주도적 봉사를 통해 예비유아교사들이 반성적 사고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는 점은 의미 있는 연구결과라 사료된다. 이 외에도 예비유아교사들은 봉사과정 속에서 자신의 봉사행위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잘못 지도한 활동은 수정 보완해 실시하는 등 활동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다른 대안적인 활동도 찾아보는 등 종합적 사고력도 증진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대학생의 진로개발 지원과 대학교육에서의 핵심역량(key competence) 강화를 위해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체계 구축 방안을 연구하여 ‘한국대학생 핵심역량 진단 시스템(K-CESA)’을 개발한다[21]. K-CESA의 영역 중에, 분석적 사고력과 추론적 사고력, 평가적 사고력, 대안적 사고력을 묶어 종합적 사고력이라 대학생 핵심역량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지어 볼 때, 예비유아교사들이 자기 주도적 봉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수업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하며, 대안적 행위를 모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는 곧 분석적, 평가적, 대안적 사고력 신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특정 프로그램을 스스로 해보는 자기 주도적 봉사는 예비유아교사들의 종합적 사고력 증진에 도움을 주며, 향후 이들에게 어떤 유형의 봉사를 권유할 것인가에 관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

선행연구들[22,23]에서는 유아교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으로 대인관계와 의사소통능력을 든다. 이러한 측

면에서, 자기 주도적 봉사에 참여한 예비유아교사들이 봉사직원들과의 소통 및 함께 함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은 의미 있는 결과라 하겠다. 특히, 예비유아교사들이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아가고 있는 측면은 봉사관련 다른 선행연구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대목이다. 이는 짜여진 봉사프로그램 데로 참여하는 봉사가 아닌, 모든 일정을 연구 참여자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해야 하는 자기 주도적 봉사를 실시한 본 연구의 독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봉사프로그램을 스스로 구성해야 하기에, 연구 참여자들은 자주 만나야 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했기 때문이다. 또한 [24]은 소그룹협력활동은 개별활동에 비해 실패나 두려움에 훨씬 잘 대처할 수 있고, 서로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과 갈등에 대해 조정하는 경험도 갖게 됨을 서술한다. 이를 반추해볼 때, 본 연구 참여자 또한 6명의 소그룹으로 구성되었고, 봉사프로그램을 팀원과의 협의를 통해 계획해나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갈등도 있었으나, 결국에는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가며 봉사를 진행해간 것이 의사소통과 대인관계능력의 증진에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를 통해 선행연구들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연구결과가 있었는데, 자원·정보 활용능력에 관해 의식을 갖게 된 부분이다. 예비유아교사들은 자기 주도적 봉사로 인해, 활동들을 팀원과의 협의를 통해 스스로 구성하고, 소화해내야 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에게 제공할 예체능 관련 활동들을 책이나 인터넷 자료를 통해 직접 찾아다니는 경험을 하였다. 또한 일반 학과 수업에서는 교수자들이 요구하는 책만 보거나 필요재료를 이미 구비된 자료실에서 가져오면 그만이었던 반면, 자기 주도적 봉사는 봉사과정을 팀원들이 함께 헤쳐 나가야 했기에 자원·정보 활용능력의 중요성에 관해 생각을 갖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22]는 유치원교사의 핵심역량으로 정보 기술 활용을 들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예비유아교사들이 유치원교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인 자원·정보 활용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점은 봉사활동의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라 볼 수 있으며, 계획에서부터 예비유아교사들이 머리를 맞대어 스스로 구성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을 시사받을 수 있다.

둘째, 자기 주도적 봉사에 참여한 예비유아교사들은 유치연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나아가 학과수업이나 기타 특강, 워크숍 등에서 유치연계교



육관련 내용이 다루어지길 제언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밝힌 [10,13,25]등의 연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내용이었다. 이는 봉사 장소가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교실이었던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2학년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이 진행되었기에 자연스럽게 유아들과 비교하게 되었을 것이며, 유초연계교육에 관심이 가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26]의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와의 교류활동 및 프로그램을 적극 실시한 기관 교사들이 유초연계에 대한 의식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다. 즉, 초등학교와의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던 유아교사들이 유초연계에 대한 필요성을 더 깊이 체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로 초등학교에 방문해 봉사가 이루어졌기에 유초연계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된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예비유아교사들에게 유초연계교육에 관심을 갖게 하고, 실천적인 유초연계 활동까지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상황을 경험하게 하는 실질적인 활동이 필요함을 시사받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들이 초등학교 교실상황에 들어가, 예체능 중심의 자기 주도적 봉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겪은 경험의 의미를 분석해보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예비유아교사들 스스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재료를 구입하며, 봉사를 실천하고, 평가까지 해보는 일련의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예비유아교사들은 대학생 및 유치원교사들에게 필요한 핵심역량 [21,22]에 해당하는 대인관계능력과 의사소통능력, 종합적 사고력, 자원·정보 활용능력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거나, 실제로 이러한 능력들을 행위로 표출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전문적인 유아교사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는 계기가 되었음을 살필 수 있었다. 더불어, 예비유아교사들은 초등학교 교실에서의 봉사를 통해 유초연계에 관한 의식도 갖게 되는 결과를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향후 예비유아교사들을 위한 전공 관련 봉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넘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활동도 봉사대상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길 권해본다. 또한 이미 짜여진 활동이 진행되는 유아기관 일과생활 속으로 예비유아교사들이 봉사를 가는 방법도 있으나, 소그룹으로 팀원들 스스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천하며 평가까지 자체적으로 해보는 일련의 과정이 진행될 수 있는 곳으로의 봉사

활동이 추진되었음 한다. 이러한 봉사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가 교육기부포털이다. 교육기부포털 사이트로 들어가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돌봄교실 봉사 이외에도, 쪽쪽캠프, 합성소리, 자유학기제, 알락달락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의 기회가 제시되고 있다[27]. 예비유아교사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스스로 구성한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진행하기란 용이하지 않은 게 현실이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교육기부포털을 통해 예비유아교사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자기 주도적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봤음 한다. 이는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되었듯이, 예비유아교사가 유초연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자기 주도적 봉사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팀원간의 갈등상황도 만나게 되고,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 사고력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등 교육적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사례가 시발점이 되어, 다양한 형태의 자기 주도적 봉사가 활성화되길 기대하며, 자기 주도적 봉사를 통해 예비유아교사가 다양한 측면에서 어떠한 인식의 변화과정을 거치는지 질적으로, 양적으로 분석하는 후속 연구들이 이어지길 제언해 본다.

## References

- [1] K. M. Lee, Y. J. Choi, S. J. Park, "Development of creativity and personality educational program for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its effects", *Korean Journal of Children's Media*, 12(2), 73-96, 2002.
- [2]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eachers' Guide Books for Nuri Curriculum for the age of 3-5", Seoul: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3.
- [3]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ies, "Relationship with the damage child and child abuse actors", [http://korea1391.org/new/page/sts\\_attacker.php](http://korea1391.org/new/page/sts_attacker.php). (accessed Dec, 12, 2014).
- [4] Fessler, R., A model for teacher professional growth and development, In P. J. Burke & R. G. Heideman (Eds.), "Career-long education"(pp.181-193),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1985.
- [5] Korean Council for College Education, "2009 college curriculum development report-early childhood department curriculum", Korean Council for College Education Research, 2009.
- [6] Boss, J. A., "The effect of community service work on the moral development of college ethics students",

- Journal of Moral Education*, 23(2), 183-198, 1994.  
DOI: <https://doi.org/10.1080/0305724940230206>
- [7] N. M. Ryu, E. H. Choi,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university students' experience of volunteer activi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4(2), 1-26, 2007.
- [8] E. H. Seo, "The effect of teaching experience of service-Learning on achievement goal orientations for women's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3(3), 477-489, 2009.
- [9] Sheckley, B. G., Keeton, M. T., "Service learning a theoretical model", In J. Schine (Ed.), "*Service learning: ninety-sixth yearbook of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Part 1(pp.32-55).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7.
- [10] H. J. Ahn, "Examining Conceptions of Volunteering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from Diverse Perspective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9(3), 471-485, 2010.  
DOI: <https://doi.org/10.5934/KJHE.2010.19.3.471>
- [11] M. J. Kim, "Meaning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educati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8(3), 257-282, 2014.
- [12] C. H. Chun, "The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ption of educational service", *Korean Journal of Children's Media*, 12(3), 249-275, 2013.
- [13] S. M. Lee, H. M. Cho, "Qualitative Research on Pre-service Teachers' Volunteer Activity at Early Childhood Education Setting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0(1), 197-216, 2011.
- [14] Long, H. B., "*Learning about self-directed learning*". Oklahoma Research Center, University of Oklahoma.
- [15] J. Y. Park, D. S. Kw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self-direct learning ability and their teaching competence and their professional recognition",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17(2), 423-437, 2016.  
DOI: <https://doi.org/10.22154/JCLE.17.2.18>
- [16] Knowles, S., Malcolm, F., Shepherd, A., "*Adult learner: the definitive classic in adult education and human res*", Seoul: Academic press, 2010.
- [17] S. J. Lee, Y. G. Jang, H. M. Lee, K. Y. Park,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fe-skills: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Research Report, 2003.
- [18] Bodgdan, R. C., Biklen, S. K.,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methods*", Boston, MA: Allyn & Bacon, 1982.
- [19] Lincoln, Y. S., Guba, E. G.,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1985.
- [20] Darling-Hammond, L., Bransford, J., "*Preparing teachers for a changing world: what teachers should learn and be able to do*", CA: Jossey-Bass, 2005.
- [21]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nalysis of the result of university students' core competencies", *KRIVET Issue Brief*, 29, 1-4, 2013.
- [22] E. S. Shin, E. H. Park, W. J. Cho, K. M. Lee, Y. E. You, J. W. Lee, B. H. Lee, "The development of Korean kindergarten teacher core competences: an explorative study",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5(5), 203-226, 2011.
- [23]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A study on the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the early childhood teacher training and employment system*", Seoul: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2010.
- [24] J. M. Jee, "Study on the creative musical learning through small group musical play activitie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ster's Thesis, 2005.
- [25] B. C. Kim,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educational service activities process for prospective teachers", *Journal of Korean Education*, 37(10), 113-145, 2010.
- [26]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Research for continuity reinforcement from kindergarten to elementary school*", Research Report,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4.
- [27] Donation for Education, "Doing donation for education", <http://www.teachforkorea.go.kr/subscriptive> (accessed Oct, 3, 2016).

황 지 애(Ji-Ae Hwang)

[정회원]



- 2008년 8월 :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교육학석사)
- 2015년 2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11년 3월 ~ 2013년 2월 : 순천제일대학교 EDL센터 연구원
- 2015년 3월 ~ 현재 : 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의전담 교수

<관심분야>  
유아교육